

# 불어의 음운론적 지배 양상에 관한 연구

장 재 성

(불어불문학과 교수)

## 1. 序 言

이 논문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Jonathan Kaye, Jean Lowenstamm, Louis Vergnaud를 중심으로 시작된 지배 음운론의 이론적 틀 안에서 불어의 음운 체계 중에서 모음 체계 (système vocalique)를 중심으로 그것의 내부 구조(structure interne)를 밝히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불어에서의 전이음(glides)의 내부 구조를 검증하고 그것이 보여주는 지배 양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음운론의 연구 방법은 1980년대 중반까지 Chomsky와 Halle가 시작한 생성음운론의 변별 자질(traits distinctifs)을 토대로한 규칙 이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Kaye와 Lowenstamm이 이 규칙 이론의 단점 즉 음운 현상의 근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단지 기술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음운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단위를 변별 자질 대신에 변별 자질의 집합체이자 음성적으로 발음이 가능한 élément으로 삼으면서 이 élément들의 결합과 분리가 음운 변화의 근본 원인으로 파악하게 된다. 즉 음운 변화에는 지배 단위(unité dominante)와 종속 단위(unité subordonnée)가 존재하는데 이 관계를 지배(gouvernement)라 부르고 이 양자가 지배 관계에 놓인다고 생각한다.

지배 관계 내에서의 지배와 종속은 보편 원리(principes)와 개별 언어에 특유한 paramètres 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음운 변화는 지배 위치에 놓인 segment는 지배 하기 위해 더 강해지려는 압력을 받게 되고 종속적인 위치에 놓인 segment는 지배 받기 위해 약해지려는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압력은 강화 작용은 élément의 결합(composition)으로, 약화 작용은 élément의 소실(décomposition)로 표현한다. 즉 élément의 결합과 소실의 원인을 규명해 나가는 것이 지배 음운론의 원리이다.

이 논문은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불어의 모음 체계를 구성하는 segment들의 내부 구조(structure interne)를 설정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불어의 음절 구조를 결정 짓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glides 자체의 내부 구조와 glides가 모음 segment들과 연쇄를 이룰 때

---

\* 이 논문은 1993년도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 대우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의 내부 구조를 *élément* 사이의 지배 관계에 의거하여 확증해보고자 한다.

## 2. 모음 *segment*

### 2.1. *éléments*

Kaye와 Lowenstamm이 설정해 놓은 모음 *segment*를 위한 *élément*은 (1)에서와 같이 6개로 나타낼 수 있다.

(1)

+	O
A <sup>+</sup>	I°
I <sup>+</sup>	U°
N <sup>+</sup>	v°

(1)에서 “+”는 *charme positif*<sup>1)</sup>를 나타내고, “°”는 *sans charme* 혹은 *charme neutre*를 나타낸다.

*élément* N은 비모음 *segment*를 위해 추가된 것이다. *élément* v는 *trait chaud*를 나타내는 선(*ligne*)과 *segment*을 표시하는 선의 교차점이 비어 있을 때 그 빈 교차점을 채우기 위해 사용됨으로 *trait chaud*를 갖을 수 없다. 따라서 *voyelle froide*라고 불리운다.

*élément* A, I, N은 각각 구강과 인두강 그리고 비강의 열림이 가장 큼으로 *charme positif*의 값을 갖고, *élément* I와 U, v는 모두 *charme neutre*의 값을 갖게 된다.

*charme* 이론은 *élément*들 간의 결합 가능성을 표현하는데, *charme*가 서로 다른 *élément*들 간에는 결합하려는 성질을 띠게 되고, *charme*가 서로 같은 *élément*들 간에는 밀어 내려는 성질을 띤다.

이러한 *élément*들의 결합과 소실 현상에서 지배 단위와 종속 단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양자의 관계를 지배(*gouvernement*)라고 부른다.

*charme positif*인 *segment*은 지배자이며, *charme neutre*인 *segment*은 피지배자가 되는

---

1) *charme*이란 용어는 물리학에서 차용했으며, 지배 음운론에서는 인체의 발음 기관에 존재하는, 구강과 비강, 인두강의 열린 정도를 나타내는 표시이다. *charme positif*는 이 강들이 가장 크게 열린 정도를 말하고, *charme négatif*는 이 강들이 거의 닫혀진 상태이며, *sans charme*는 그 중간 단계를 말한다.

이 개념은 *élément*간의 결합 관계를 결정지어 주며 또한 *segment*의 지배 관계를 가장 명료하게 표시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다.

것이다.

이 6개의 *élément*이 5개의 *trait distinctif*로 표현된다: **ARRIERE, ARRONDI, HAUT, A.T.R, bas**<sup>2)</sup>

이 5개의 *trait distinctif*로 각각의 *élément*을 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 (2) A : [-ARRONDI, +ARRIERE, -HAUT, -A.T.R, +bas]
- I : [-ARRONDI, -ARRIERE, +HAUT, -A.T.R -bas]
- U : [+ARRONDI, +ARRIERE, +HAUT, -A.T.R, -bas]
- ɪ : [-ARRONDI, +ARRIERE, +HAUT, +A.T.R, -bas]
- v<sup>3)</sup> : [-ARRONDI, +ARRIERE, +HAUT, -A.T.R, -bas]

(밑줄친 변별 자질은 각 *élément*의 *trait chaud*를 나타냄)

(2)에서 *élément* I 는 Kaye와 Lowenstamm 이 l'opérateur de charme(charme의 작동소) 라고 명명한 것으로서 이것과 결합하는 모든 *élément*은 전부 *charme positif*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2)에서 *élément* N 이 표기가 안된 것은 이 *élément*은 단지 비모음의 표기를 위해 첨가된 것이기 때문이다.

(2)의 각 *élément*들은 서로 간에 fusion (융합) 을 할 수있다.

*fusion*이라는 것은 하나의 *élément*이 결합하려고 하는 *élément*에게 자기의 *trait chaud*를 전해 줌으로 해서 상대 *élément*의 성질을 변화 시키는 것이다.

(3) X . Y → Z

(3)에서 *fusion*의 작동소(*opérateur*)가 X이고 Y는 *tête*를 표시한다. 작동소는 *tête*의 왼편에 놓인다.

## 2.2. 내부 구조(structure interne)

이제 (1)의 *élément*으로 불어의 12개의 구강 모음과 4개의 비모음의 내부 구조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음 *segment*끼리의 결합 관계나 서로의 지배 관계를 밝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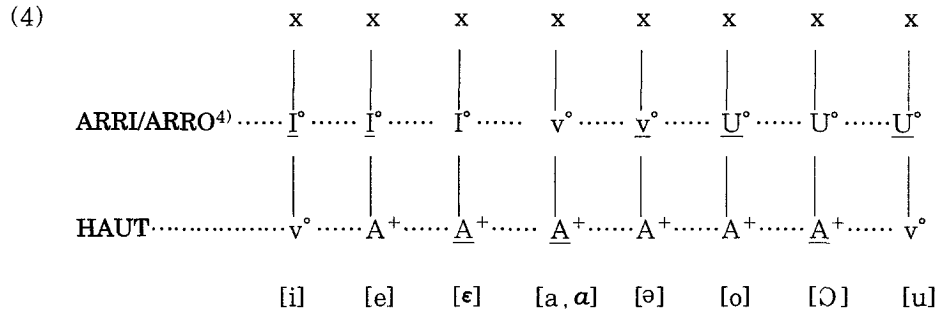
2) 변별 자질 *bas*는 어떠한 *élément*의 *trait chaud*도 아니므로, 다른 변별 자질과는 달리 소문자로 표기한다.

3)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élément* v 는 다른 *élément*과는 달리 *trait chaud*를 갖지 못하므로 관습상 소문자로 표기한다.

작업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불어의 12개의 구강 모음중 3개는 2차 조음이라 할 수 있는 전순 원설 모음이므로 모음 segment의 내부 구조를 3개의 groupe으로 나누어서 밝혀 보자.

### 2.2.1. 제 1 groupe



(밑줄친 élément은 각 segment의 tête임)

(4)에서 9개의 모음중 a와 a는 전후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이것은 전후의 변별성이 불어 자체에서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charme을 1차적 지배 조건<sup>5)</sup>으로 삼는 지배 음운론에서는 전후의 성질이 charme과 관련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segment e와 ɛ, 그리고 segment o와 ɔ는 구성 élément이 완전히 같으나 tête가 다르므로 해서 구별이 된다. 이것은 어느 élément을 tête로 삼느냐에 따라 구강의 열림의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4)에서 élément v를 포함하는 모음 segment들은 schwa를 제외하고 당연히 élément v가 아닌 다른 élément을 tête로 가지게 된다.<sup>6)</sup>

불어에는 élément v를 tête로 하는 schwa가 존재한다. 이 모음은 trait chaud가 존재하지 않을 때만 나타나는 élément v를 tête로 하기 때문에 가장 불안정한 모음이 될 수 밖

4) 제1 groupe에서는 각 élément이 위치하게 되는 trait chaud ARRIERE와 ARRONDI가 fusion을 이룰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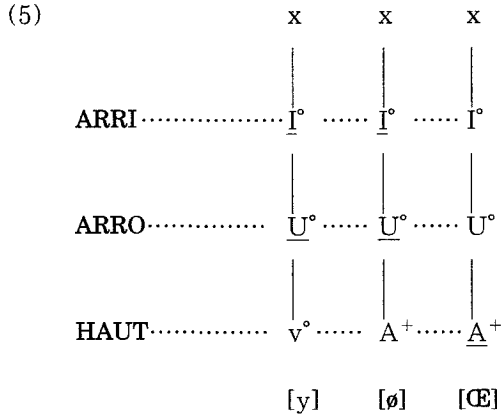
5) 여기서 charme를 1차적 지배 조건이라 하는 것은 이 charme의 개념만으로는 지배의 모든 상황이 다 설명이 되지 않으므로, John Harris에 의해 2차적 지배조건, 즉 segment을 구성하는 élément의 갯수로 표시되는 분절음의 복잡성(segmental complexity)이 지배의 제2조건으로 제기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charme neutre의 성질을 갖는 segment끼리의 지배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수년 후에 제기된 것이다. 주 16) 참조.

6) Chomsky의 유표 이론에 의하면 당연히 이 부류의 모음들이 가장 값이 싼 무표적(non marqué) 모음 groupe이 된다.

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불어에서 schwa가 왜 가장 탈락하기 쉬운 모음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2.2 2. 제2 grou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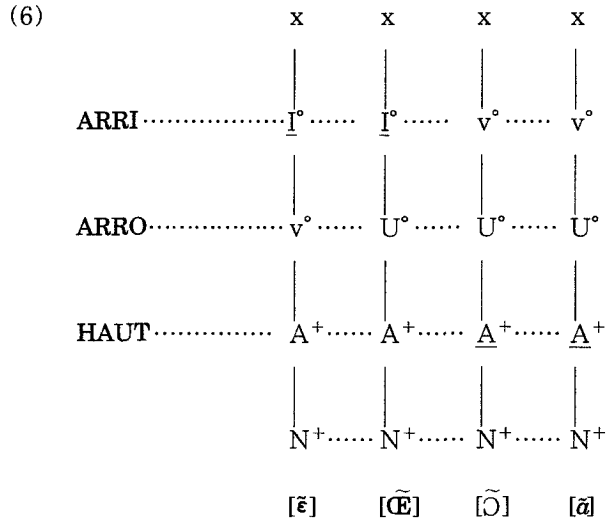
(5)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trait chaud** ARRIERE와 **ARRONDI**가 **fusion**상태로 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1 groupe과 다른 점인데 여기에서는 모음 segment들이 모두 **élément I°**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élément U°**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설성에 원순성이 가하여진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모음들은 당연히 발음 자체가 제1 groupe보다 복잡하다.

Kaye와 Lowenstamm이 제시한 모음 segment들의 내부 구조(structure interne)에는 **trait chaud** ARRIERE와 **ARRONDI**가 항상 **fusion**된 상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그만큼 이 제2 groupe에 속한 모음들이 부자연스러운 집합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sup>7)</sup>

7) 주 6의 모음들과 상반되는 가장 값이 비싼 유표적(marqué) 모음들이다. 불어는 모든 언어 가운데에서도 이 부류의 모음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 2. 2. 3. 제3 groupe



(6)에서 segment œ을 제외하면 trait chaud ARRIERE와 ARRONDI가 fusion된 상태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단지 segment œ만이 élément I와 élément U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전설 원순 모음이므로 양 trait chaud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내부 구조에 모두 élément N을 가지고 있는 비모음들이다.

## 3. glides

## 3. 1. 분포

이제까지의 모음 segment들의 내부 구조를 바탕으로 반모음이라 불리우는 glides의 내부 구조를 밝혀보고자 한다.

glides의 내부 구조는 불어의 음절 구조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이 됨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증한 후에 지배 이론에 비추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확정 짓고자 한다.

불어에는 3개의 glides가 있다. j, w, ɥ

그런데 이 3개의 glides는 전이음의 특성상 항상 모음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un glide + une voyelle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불어의 모든 모음이 이 3개의 *glides*와 전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기 때문에, 결합 분포는 각각 다르다.

불어의 구강내 모음 분포에 따라 *glides*와의 결합을 살펴보자.

(7) i.

je jø  
 jɛ jɛ̃ jẽ      jɔ jɔ̃  
 ja

ii.      wi

wɛ wẽ  
 wa

iii.      ɥ i

ɥ e  
           ɥ ɛ      ɥ ɔ̃  
           ɥ a      ɥ a      ɥ ă

(7)-i 은 j + V의 분포이며, (7)-ii는 w + V, (7)-iii은 ɥ + V의 분포 형태이다.

(7)-i 에서는 전, 후설 고모음과의 결합이 없으며, (7)-ii에서는 후설 모음과의 결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7)-iii은 위의 두 *glides*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그것은 다른 모음이 뒤따른다 해도 이 *glide*는 항상 자기의 순음성(*labialité*)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은 이들의 연쇄(*séquence*) 를 포함하고 있는 어휘들을 제시하고 있다.

(8) i.	pied	[pje]
	pierre	[pjɛ:R]
	pieux	[pjø]
	rien	[Rjẽ]
	ext rieur	[ɛksteRj(ɛ:R)]
	caf	[kjafe]
	exteriorer	[ɛksteRjɔ̃Re]

	nation	[nasjɔ̃]
ii.	oui	[wi]
	ouest	[wɛst]
	coin	[kwɛ̃]
	oiseau	[wazo]
iii.	lui	[lɥi]
	nuer	[nɥe]
	nuaison	[nɥɛzɔ̃]
	nuage	[nɥa:ʒ]
	continuation	[kɔ̃tinɥsjɔ̃]
	continuons	[kɔ̃tinɥɔ̃]
	nuance	[nɥɑ̃:s]

### 3. 2. 구성 성분(constituants syllabiques)과 지배

glides의 내부 구조는 단순한 모음 segment와는 달리 두개의 segment의 관계를 나타내야 함으로 이 양자간의 지배 관계의 유무가 필연적으로 대두됨으로 먼저 KLV<sup>8)</sup>의 음절 이론부터 제시하고자 한다.

지배 음운론의 지배(gouvernement)는 두 PS(points squelettiques)<sup>9)</sup> 사이에 유지되는 이분법적이며 비대칭적 관계로 정의된다.

이 양자의 지배적 관계가 음운 변화의 주요 동기로 생각되어지는데<sup>10)</sup>, 두 PS간의 지배적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9) i. 두 PS는 반드시 인접해야 한다 (strictement adjacent).

ii. 두 PS간의 지배는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가능하다(strictement directionnel).

8) KLV는 Kaye, Lowenstamm, Vergnaud의 첫자를 딴 약자이다.

9) points squelettiques란 하나의 segment가 그의 내부 구조내에서 élément들을 받을 수 있는 접점을 말한다. Georges Héroult는 이 점을 position d'accueil라고도 부른다.

10) 이것은 모든 음운 변화는 항상 합당한 動機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동기에 의해서 지배 음운론에서는 생성 음운론에서 지금까지 인정해온 음운 변화와 그것이 일어나는 환경 사이의 임의적 관계를 배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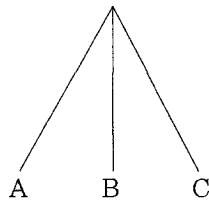
KLV는 3개의 음절 구성 성분(*trois constituants syllabiques*)을 제시한다.

- (10) i. l'attaque (A)
- ii. la rime (R)
- iii. le noyau (N)

각 성분은 양분되어질 수도 있고, 단선으로 있을 수도 있다. 양분되어질 때는 필연적으로 그 사이에 지배 영역이 존재하게 된다.

조건 (9)는 하나의 성분이 3개 이상으로 분리되어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3개 이상으로 분리될 경우 반드시 조건 (9)의 i이나 ii를 어기게 되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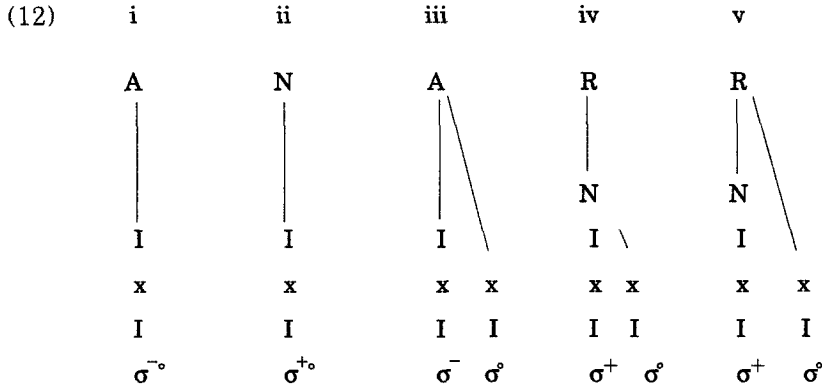


(11)에서 이 성분의 *tête* 를 A로 잡는다면 A와 B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A는 B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러나 A는 조건 (9)-i 때문에 B를 건너서 C를 지배할 수가 없다. 그리고 B를 이 성분의 *tête*로 삼는다면 그것은 A와 C에 모두 인접해 있으므로 조건 (9)-i은 만족시키지만 반드시 지배는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질 것을 규정한 조건 (9)-ii를 어기게 된다. C의 경우도 A와 같은 이유로 배제 된다. 3개로 분리되었을 때가 이와 같으므로 3개 이상은 당연히 조건 (9)를 어기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성분이 분리된다면 반드시 양분되어야 한다.

3 구성성분: *l'attaque, la rime, le noyau*가 양분되거나 단선으로 있거나를 결정하는 것은 각 개별 언어의 *paramètres*에 따르게 된다.<sup>11)</sup>

그리고 *rime*의 경우는 양분될 때 왼쪽에는 반드시 *noyau*가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12) 과 같은 5개의 구조를 얻게 된다.

11) 지배 음운론에서 (9)의 조건이나 (10)의 성분들은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원리(*principes*)에 속하는 것이고, 이 원리의 적용을 받으면서 각 개별 언어마다의 독특한 특색을 규정하는 것이 *paramètres*이다. 지배 음운론에서 이 *principes*는 가장 상위 차원에서 음운 변화를 규정 짓는 것이고 이 원리의 창시자들이 바로 KLK 들이다. 그러나 각 언어의 특색을 이루는 *paramètres*는 앞으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밝혀 내야할 과제인 것이다



(12)에서 양분된 성분들은 모두 지배 영역을 갖게 되는데, 이 때는 왼쪽 위치에 놓인 segment가 오른쪽에 놓인 segment를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지배를 음절 지배 (gouvernement syllabique: GS)<sup>12)</sup>라 부른다.

즉 GS에서는 tête가 항상 첫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attaque 는 charme 와는 무관하게 항상 noyau에 의해 지배되게 되는데 이것은 음절<sup>13)</sup>을 이루기 위해 먼저 투사(projection) 되는 것이 noyau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사이에서의 음운 변화에서 파생되는 모든 과정에서 재음절화는 존재하지 않는다.<sup>14)</sup>

### 3.3. j + V, w + V의 내부 구조<sup>15)</sup>

#### 3.3.1. première hypothèse

이들 glides의 내부 구조로 가능한 첫번째 가정은 glides j와 w를 attaque에 연결 시키

12) 지배 형태에는 음절 지배외에 음절간 지배(gouvernement transsyllabique)가 있으나 불어의 음운 체계를 중심으로 논의 되는 우리의 연구에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설명이나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13) 지배 음운론에서 음절(syllabe)은 성분(constituant)과 같은 지위를 갖지 못한다. 그것은 모든 음운 변화의 동기가 논의되고 설명되어지는 영역이 모두 성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의상 음절을 attaque + rime의 연쇄로 사용하고자 한다.

14) KLV는 이 재음절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몇몇 음운 현상의 변화 과정중에서 구성 성분의 변화가 목격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의 우리의 논의와는 별개의 연구를 요하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논의는 피하고자 한다.

15) 불어의 3 glides중에서 j와 w를 같은 항목에서 다루는 것은 이 전이음들이 ㅈ, ㅊ과는 순음성(labialité)에서 나뉘어지며, 또 양자는 같은 내부 구조를 갖는 것이 문법적 단순성을 얻게 되므로 이 둘의 내부 구조를 함께 다루는 것이 지면상 절약이 되리라는 생각에서이다.

는 것이다.

glide j를 포함하는 pied와 glide w를 포함하는 oiseau 혹은 경우에 따라 quoi를 예를 들어 논의해 보자.

(13) i.	A	N	A	N
	x	x	x	x
	p	∅	I°	e
ii.	A	N	A	N
	x	x	x	x
	U°	a	z	o

(13)은 각각의 glide가 attaque에 연결된 구조를 보여준다. 이것들은 구조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13)-i의 경우 두 attaque가 빈 핵(noyau vide)을 사이에 두고 있으므로 자음 segment와 glide 사이에 빈 핵이 존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은 (13)-ii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quoi [kwa] 같이 wa의 연쇄 앞에 자음 segment가 오는 예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glides j와 w는 실질상 élément I°와 U° 하나씩만을 갖는 segment인데, 앞에 오는 자음 segment와의 사이에 빈 핵을 상정한다면, 이 빈 핵에는 언제든지 모음 segment가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되나 실제 불어에는 그러한 예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단히 ad hoc한 분석 방법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 내부 구조는 타당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 3.3.2 deuxième hypothèse

두번째 가정은 위의 첫번째 가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자음 segment와 뒤따르는 glide를 하나의 attaque로 묶어 주므로해서 그 사이의 빈핵을 제거하는 것이다.

(14) i.

A	N
/ \	
x x	x
p I°	e

ii.

A	N
/ \	
x x	x
k U°	a

(14)의 가정은 자음 *segment*와 뒤따르는 *glide*를 하나의 *attaque*로 묶어서 그 사이의 빈칸을 제거했다. 즉 양분된 *attaque*(*attaque branchante*)를 인정했다는 것과 같다. 지금 여기서는 불어에서의 *attaque branchante*의 존재에 관해서 논의할 시기가 아니므로 이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14)의 가정을 다시 생각한다면 (14)의 예는 *glide*에 앞에 오는 자음 *segment* 자체가 양분되어 있는 경우 같은 구조를 갖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의 조건 (9)-ii를 여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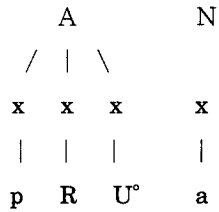
즉 *glide* *j*를 포함하는 *crier* [krije], *prier* [prije]와 *glide* *w*를 포함하는 *proie* [pRwa], *crois* [kRwa]의 예 같은 경우이다.

(14)의 가정에 따라 *crier* [kRije]와 *proie* [pRwa]의 내부 구조를 구성해 보면 (15)와 같이 될 것이다.

(15) i.

A	N	A	N
/ \			
x x	x	x	x
k r	i	I°	e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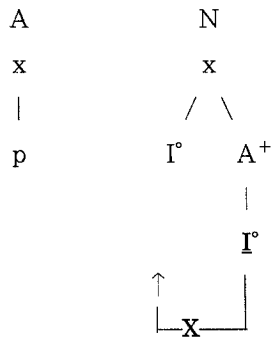
(15)-i의 구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논의 하기 이전에, (15)-ii의 구조상의 결합 즉, 조건 (9)의 대전제인 **strictement adjacent**과 **strictement directionnel**은 결국 하나의 성분이 3개 이상의 PS를 갖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두번째의 가정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

### 3.3.3. troisième hypothè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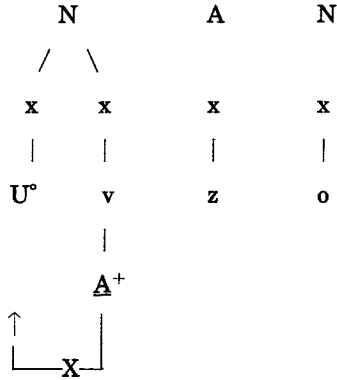
세번째 가정은, 앞의 두 가정이 모두 glides j와 w를 **attaque**에 연결시켰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번엔 glides j와 w를 **noyau**에 연결 시키는 것이다.

glide 뒤에는 언제나 모음 **segment**가 이어지게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당연히 뒤에 오는 모음과 같이 양분된 핵(**noyau branchant**) 즉, 중이중 모음(**diphthongue lourde**)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16) i.



ii.



(16)은 앞의 두 가정과는 달리, glides j와 w를 noyau에 연결 시켰다. 그러나 이 구조는 (9)의 조건들은 만족시키지만, 지배의 근본 조건인, 중이중 모음(diphthong lourde) 내에서의 지배 조건을 위배하게 된다. 중이중 모음은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noyau branchant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noyau branchant에서는 tête가 항상 첫번째 PS에 위치해야 하는데, (16)-i, ii는 모두 charme의 값에서나 élément의 수<sup>16)</sup>에서나 두번째 PS에 위치한 segment이 첫번째 PS에 위치한 segment을 지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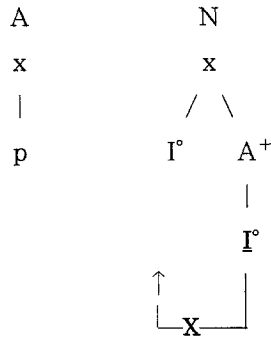
따라서 이 세번째 가정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

#### 3.3.4. quatrième hypothè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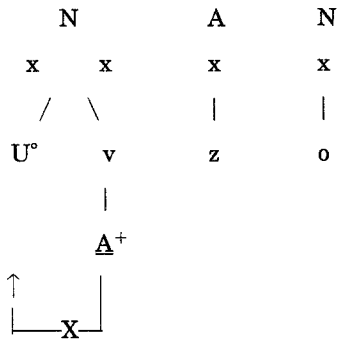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은 glides j와 w를 뒤따르는 모음 segment와 경이중 모음(diphthong légère)을 이루는 구조로 생각하는 것이다.

16) John Harris(1990)는 KLV의 charme 이론만으로는 모든 지배의 경우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개별 언어에 따라서는 sans charme의 값을 갖는 élément이 같은 sans charme의 값을 갖는 élément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지배 조건으로 각 segment의 élément의 수에 의해 지배가 결정된다는 segmental complexity를 주장하였다. 이것은 두 segment이 다른 모든 지배 조건을 만족시킬 때, élément이 많은 segment이 élément이 적은 segment을 지배한다는 이론이다.

(17) i.



ii.



(17)의 구조는 glides j와 w가 뒤따르는 모음 segment와 하나의 PS에 연결된 경이중 모음(diphtongue légère)의 구조이다.

이것이 (16)의 구조와 다른점은 (16)의 구조는 하나의 noyau가 두개의 PS를 갖고 있으나, (17)에서는 하나의 noyau가 하나의 PS를 갖고, 이 PS가 양분되는 구조<sup>17)</sup>라는 것이다.

이 경이중 모음(diphtongue légère) 구조는 중이중 모음(diphtongue lourde) 구조와는 지배 관계가 완전히 반대이다.<sup>18)</sup> 즉 tête 가 두번째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하나의 PS에 연결된 두 segment중에서 두번째 것이 첫번째 것을 지배해야 하는데 (17)은 이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j + V, w + V의 내부 구조는 glides j와 w가 뒤따르는 모음 segment와 경이중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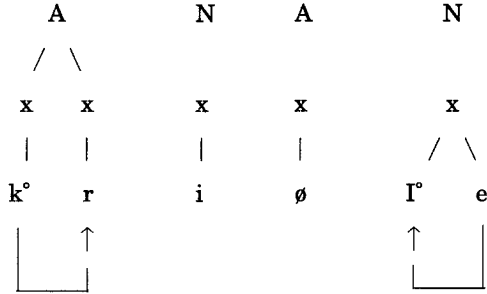
17) 이렇게 하나의 성분이 하나의 PS를 갖고며 그 PS가 양분되어 있는 경우를 *structure de contour*(굴곡 구조)라고 부른다.

18) 이 양자는 생성 음운론에서 말하는 거울 영상 규칙(*mirror image rule*)을 이루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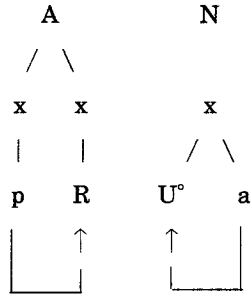
음(*diphthongue légère*) 을 이루고 있는 구조이다.

이렇게 정했을 때 (15)에서 언급했던 *crier* [kRije]와 *proie* [pRwa]의 내부 구조를 다시 생각해 보면 (18)과 같다.

(18) i.



ii.



네번째의 방법을 적용시킨 (18)의 구조는 *attaque* 내부에서는 GS<sup>19)</sup>가 적용되어 첫번째 *segment*이 두번째 *segment*을 지배하고 *noyau* 내부에서는 경이중 모음(*diphthongue légère*) 구조로 두번째 *segment*이 첫번째 *segment*을 지배하므로 자체내에서의 지배 관계가 아무런 모순점을 지니지 않고 있으며 또한 i, ii의 구조가 완전히 통일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구조를 *crier* [kRije]와 *proie* [pRwa]의 내부 구조로 생각할 수 있다.

### 3.4. ㄱ + V의 내부 구조

#### 3.4. 1. première hypothèse

*glide* ㄱ 는 앞에서 논의한 *glides* j와 w와는 그 자체의 내부 구조에서부터 달리 보아야

19) 하나의 성분내에서 이루어지는 지배. 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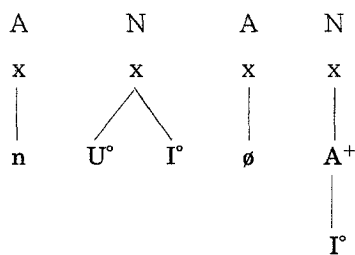


(20) 은 *noyau branchant*의 왼쪽 *PS*가 다시 굴곡 구조를 이루는 복잡한 구조이나 구조상의 결합은 없다. 그러나 *noyau branchant*의 경우 *tête*가 첫번째 *PS*에 위치하므로 지배의 화살표가 보여 주는대로 이 굴곡 구조의 *élément U*나 *élément I*는 구조의 특성상 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각 단독으로 위치하므로 *élément*의 수는 하나로 계산될 수 밖에 없고 또한 모두 *sans charme*이므로 지배해야 할 *segment e*를 지배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 3.4.2. deuxième hypothèse

두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segment*가 각각 별개의 *noyau*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이다.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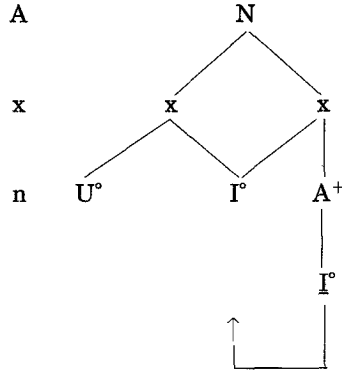
(21)은  $\nu + V$ 사이에 *attaque vide*를 상정한 것이다. 이 경우는 가장 안정된 구조이므로 성분간의 지배 관계는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nu + V$ 사이에 *attaque vide*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이 *attaque vide*에는 3.3.1.에서의 모음 *segment*처럼 언제든지 자음 *segment*가 삽입되어질 수 있는데 그때는 *glide + voyelle*의 연쇄가 파괴되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glide*의 개념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 즉 *glide*란 모음 *segment*로의 이동 중에 형성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자음 *segment*가 삽입될 수 있는 *attaque vide*를 상정한다면 *glide*의 정의 자체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21)의 구조도 배제된다.

### 3.4.2. troisième hypothèse

이제  $\nu + V$ 의 구조는 (20), (21)과는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22)의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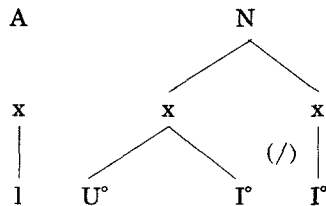
(22)는 (20)의 구조에서 *noyau branchant*의 지배 위치에 있는 왼쪽 PS의 *élément I°*가 피지배 위치의 오른쪽 PS로 *propagation*되어 이층의 굴곡 구조를 이룬 것이다.

이것은 (20)의 구조에서 *tête*에 위치하는 glide  $\nu$ 가 *élément I°*의 수나 *charme*의 값으로 보아 지배해야 할 *segment e*를 지배할 수가 없으므로 그의 *élément I°*를 *segment e*로 *propagation*시킴으로써 결국 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때 지배를 받는 것은 glide 전체가 아니라 그것의 일부인 *élément I°*에 한정되지만 결과적으로 지배의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된다.

따라서 (22)의 구조는 하나의 *noyau*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복잡한 구조중의 하나이지만 구조상의 결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배 관계의 모순도 없게 됨으로  $\nu + V$ 의 내부 구조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이 구조를 (8)-iii에서  $\nu + V$ 의 연쇄(*séquence*) 중 V의 지배력이 가장 약한 모음 *segment i*의 예인 *lui* [l $\nu$ i]에 적용시켜서 그 타당성을 검증해 보기로 하자.

(23)



(23)에서는 *noyau branchant*의 피지배 위치에 있는 *élément I°*가 지배력이 가장 약한 *segment*에 속하므로 glide  $\nu$ 의 *élément I°*의 *propagation*은 임의적이다. *propagation*이

이루어질 때에는 양자의 *élément*이 완전히 같으므로 이 둘 사이에 *fusion*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구조나 지배 관계에 아무런 결함이 없으므로 (22)의 구조가 타당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 4. 結 語

이상에서 지배 음운론의 틀 안에서 불어의 모음 체계를 중심으로 그 전이음들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 글의 분석의 토대가 되는 지배 음운론의 출발점은 *élément*이다. 모든 *segment*는 하나 이상의 *élément*으로 되어 있으며 *segment* 자체의 모든 변화도 이 *élément*의 결합과 소실에 의해 표현된다.

불어의 모음 체계를 *KL**V*의 *élément*으로 표현하여 그 *tête*를 정하는 작업은 앞으로 언어의 음운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작업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불어의 전이음들의 내부 구조를 경이중 모음(*diph**tongue légère*) 구조로 분석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제 앞으로 남은 작업은 자음 체계를 확정하는 일과 이것을 토대로 다양한 불어의 음운 변화 현상을 밝히는 것이다.

지배 음운론은 아직 완전히 정립된 이론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이론의 연구자들의 목표는 각각의 개별 언어를 연구하여 그것의 *paramètres*를 밝혀내고 이러한 연구를 집약하여서 새로운 *principes*를 정립하여 다시 그것을 개별 언어의 음운 변화 연구에 활용하면서 하나의 보편 문법을 이루어 나가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 Bibliographie

Carton, Fernand(1974), *Introduction à la phonétique du français*, Bordas, Paris.

Charette, Monik(1988), *Some constraints on governing relations in phonology*, Ph.D. dissertation, McGill University.

Charette, Monik(1989), "The minimality condition in phonology", *The journal of linguistics* n° 25: 159-187.

Harris, John(1988), "A government-based analysis of lenition" *Paper presented at Generative Phonology Workshop*. University of Leiden.

21) *fusion*은 모음 *segment* 사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élément*이 같은 모음 *segment*가 인접해 있을 때 반드시 *fusion*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둘 사이에 *attaque vide*가 있다면 이것이 두 모음 *segment*의 *fusion*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 Harris, John(1990), "Segmental complexity and phonological government", *Phonology* 7: 255-300.
- Hérault, Georges(1989), "Propagation et gouvernement: Etude d'un cas de palatalisation en Aizi", *Afrique et langage*: n° 26: 5-16.
- Kaye, Jonathan(1989a), "Government in phonology: The case of Moroccan Arabic", *The linguistic review* n° 6: 131-160.
- Kaye, Jonathan(1989b), "Coda licencing", Ms. SOAS-University of London.
- Kaye, Jonathan (1992), "Derivations and Interfaces", *Phonologie Yearbook*: 90-126.
- Kaye, Jonathan & Jean Lowenstamm(1981) "Syllable structure and markedness theory", In *Celletti. Brandi & Rizzi*, 1981: 287-316.
- Kaye, Jonathan & Jean Lowenstamm (1984), "De la syllabicité", In Dell, D. Hirst & J. R. Vergnaud(eds.), *Forme sonore du langage*, Paris: Herman.
- Kaye, Jonathan & Jean Lowenstamm (1986), "Compensatory lengthening in Tiberian Hebrew", *Wetzel & Sezer(eds.): 97-132*.
- Kaye, Jonathan, Jean Lowenstamm & Jean-Roger Vergnaud (1985), "The internal structure of phonological elements: a theory of charm and goverment", In *Phonology Yearbook* Vol. 2: 305-328.
- Kaye,Jonathan, Jean Lowenstamm & Jean-Roger Vergnaud (1987), "Constituent structure and goverment in phonology", *Paper presented at GLOW meeting*, Venise.
- Shohei, Yoshida(1990), *Some aspects of governing relations in Japanese phonolog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Résumé》

## Quelques aspects du gouvernement phonologique du français

**Chang Chae-Seong**

Cette étude vise à éclaircir la structure interne du système vocalique et des glides du français dans le cadre de la phonologie du gouvernement.

La théorie de KLV commence par l'élément. Tous les segments phonologiques sont constitués d'un ou de plusieurs éléments. Chaque élément est une matrice de traits

complètement spécifiée, phonétiquement interprétable et prononçable. Un élément possède un trait chaud dont la valeur est marquée. Dans cette théorie, c'est l'élément qui se charge d'expliquer tous les phénomènes phonologiques.

De plus, KLV postulent qu'il doit exister des classes d'éléments partageant une propriété particulière qui a une influence sur les combinaisons d'éléments possibles et sur leur organisation en systèmes segmentaux. KLV appellent cette propriété le charme, qui est déterminée en fonction du degré d'activation d'une cavité phonatoire.

D'abord, nous avons représenté le système vocalique du français par l'élément. Cette opération servira à expliquer les phénomènes phonologiques du français avec cette théorie.

Ensuite, avec la structure interne des segments vocaliques, nous avons cherché à déterminer la structure de la séquence glide + voyelle dont la vérification contribue à éclaircir la structure syllabique du français.

Enfin, nous avons conclu que les glides du français font la diphtongue légère avec les voyelles qui les suivent, c'est-à-dire qu'ils ont la structure de contour.

La phonologie du gouvernement a pour but de rechercher la grammaire universelle de la phonologie. Elle tente d'atteindre ce but par l'étude des possibilités de posséder un petit nombre de principes universels avec des paramètres. C'est-à-dire qu'elle ne laisse aucune place aux règles phonologiques de la phonologie générative.

Tous les phénomènes phonologiques peuvent s'expliquer par des compositions et des décompositions des éléments.

La phonologie du gouvernement est donc la théorie phonologique qui cherche à éclaircir les causes des compositions et des décompositions des éléments.